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막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mailto:sa3119@nate.com)



강 론



## 예수님을 잘 맞이하는 삶

오늘 복음은 혼인 잔치를 전제로 한, 열 처녀의 비유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오는 혼인 잔치를 여러 차례 다루는데, 이 단락에서만 열 처녀가 언급됩니다. 처녀들은 두 무리로 나누어지는데, 겉으로는 ‘등’을 준비해 놓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구분되지 않지만,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신랑이 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등’을 밝힐 기름을 준비한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로 나누어 집니다.

이 비유에서 ‘등’이 무엇을 나타내는지는 명시되지 않지만, 세상의 소금과 빛에 대한 가르침에서는 착한 행실로 나오고(5,13-16), 아우구스티누스도 선행을 뜻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등잔의 빛을 밝히는 데 꼭 필요한 ‘기름’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리킨다고 여깁니다. 라삐들의 전통에서는 기름을 선행이나 율법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보았고, 교부들은 기름이 사랑을 나타낸다고도 보았습니다.

---

예수님 시대의 혼례 관습에서, 신랑은 신부 집에서 장인과 혼인 계약서에 따른 세부 사항을 협의하느라 귀가 시간이 늦어지곤 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늦어지다’라는 동사는 충실한 종과 불충실한 종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에게 사용된 ‘늦어지다’와 같은 동사입니다. 주인이 늦어지자 종들은 동료들을 때리고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십니다. 즉 재림에 대한 생각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리라는 생각으로 타락한 삶을 살던 이들을 연상시킵니다.

어쨌든 오늘 복음 말씀에서 ‘깨어있다는 것’은 ‘등’만 준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등’을 계속 밝힐 기름도 함께 준비하는 자세를 일컫고 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만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올 재림까지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이들만이 슬기로운 사람들임을 일러 줍니다.

현재를 충실히 살면서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잘 준비하는 깨어있는 삶이겠습니까? 아마도 현재에 더 충실하려고 노력한다며 준비된 미래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잔치에 초대된 사람의 마음을 더 헤아렸다면 당연히 그에 걸맞은 옷을 입어 쫓겨나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신랑이 언제 올지 확실히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기름을 더 준비해 갔다면 닫힌 문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은 현실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에 잘 대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현재의 삶을 살면서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맞이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다면,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나로 인해 조금 더 행복해 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그런 삶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신랑을 마중 나갈 때 행복이라는 등뿐만 아니라 이웃의 행복이라는 기름도 함께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성 본당 황영화 마티아 신부



## 전례

### 입당 전 안내

교형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32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갈망한다면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지혜를 드러내 보여 주실 것입니다. 현세를 살면서도 영원을 바라보는 순례자는 하느님의 지혜로 길을 나서고 끝까지 걸어갈 힘을 얻습니다. 이 전례를 통해 우리의 등을 밝혀 줄 지혜의 빛이 하느님이심을 고백하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빛을 주심에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이 전례에 참여합니다.

**입당성가** : 68번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 본기도

†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에게 해로운 것을 모두 물리쳐 주시어, 저희가 평안한 몸과 마음으로, 자유로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제1독서 : 지혜서 6장 12절-16절

**안 내** : 지혜를 구하는 이에게 지혜는 스스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묵 상** : 우리는 수많은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생각들을 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성령께 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갈등과 선택의 순간 우리 앞에 새겨진 지혜의 빛이 우리를 이끄시도록 자신을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화답송** : ◎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 제2독서 : 테살로니카 1서 4장 13절-18절

**안 내** : 우리는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이들을 함께 데려가신다는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묵 상** :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을 당신 나라로 데려가시고 주님 곁에 늘 머물수 있게 하십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 25장 1절-13절

**강 론** : '예수님을 잘 맞이하는 삶'(1-2쪽)

**예물준비성가** : 210번 '나의 생명 드리니'

---

영성체성가 : 175번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영성체 후 묵상**

지혜로운 처녀들이 신랑을 만나  
혼인 잔치에 들어가리라는 희망을 갖고 길을 떠나듯이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길을 떠납니다.  
금방 꺼질 만큼의 사랑으로는 신랑을 맞이할수도,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사랑은 기다림에 인내를 주고 지칠 때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침묵>

등이 아무리 좋아도 기름이 떨어지면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것처럼  
영원한 행복이 있는 하느님 나라로 들어갈 때까지 깨어 기도할 때  
사랑의 빛은 우리를 하느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436번 '주 날개 밑'

**※ 공소사목 성금**

김종삼님	30,000원	홍운호님	50,000원
상지여중고	200,000원	최길소님	50,000원
김대환님	50,000원	황학기님	30,000원
낙서공소	150,000원	함창성당	100,000원
강성중님	20,000원	송경흡님	50,000원
김상근님	50,000원	허보록신부님	50,000원
마현공소	70,000원	바오로딸	30,000원
오창대님	50,000원	김경희님	50,000원
신현공소	150,000원	서문동성당	200,000원
청기공소	50,000원	노정화님	50,000원
서성희님	50,000원	당포공소	50,000원
고광수님	50,000원	오영창님	50,000원
이흥길님	50,000원	권오심님	50,000원
익명	20,000원	이범수신부님	200,000원
왕실공소	50,000원	신산공소	100,000원
전수열님	50,000원	이무상님	100,000원
이순구님	30,000원	쌍용공소	100,000원
목성동성당	300,000원	최현경님	50,000원
산북공소	100,000원	김홍철님	100,000원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9,290,000원 입니다.

성금 보내주실 분은 지로 7519989나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알 림

### ■ ‘새로 나는 성경공부’ (역사서)

- 일시 및 장소 :  
안동 - 11월 11일 18일 25일 12월 2일 9일 16일  
교구청 (토요일 13:30-17:00)  
함창 - 11월 13일 20일 27일 12월 4일 11일 18일  
함창 성당 소성당 (월요일 19:30-22:00)
- 강사 : 교구 성서사도직 담당 김 루치아나 수녀
- 회비 : 1인 30,000원(교재비 포함)

### ■ 예비신학생 부모 성지순례

- 일시 : 11월 12일(주일)
- 장소 : 전주교구 나바위 성지, 천호성지
- 준비물 : 미사준비, 목주, 편한 신발, 모자
- 회비 : 1만원

### ■ 2017년 열린 성경 강좌 7

- 일시 : 11월 13일(월) 19:30
- 장소 : 교구청 1층 강당
- 준비물 : 신, 구약 성경
- 참가비 : 1인 2,000원
- 강사 : 함원식 신부(영덕 본당 주임)

### ■ 문경 엠마오 기쁨 피정의 집 축복미사

- 일시 : 11월 17일(금) 11:00
- 장소 : 문경읍 지곡리 태극기마을 끝동네  
(문경성당에서 5분거리)

### ■ 제4차 가나혼인강좌(혼인 전 교리교육)

- 일시 : 11월 18일(토) 13:00 - 18:00
- 장소 : 교구청
- 참가비 : 1인 1만원(2인 2만원)
- 대상 : 혼인을 준비 중인 남녀  
(함께 참석해야 함)
- 신청 : 11월 16일(목)까지  
사목국으로(858-3114~5)

### ■ 고3 피정

- 주제 : ‘길’
- 일시 : 11월 18일(토) 10:00 ~ 19일(주일) 18:00
- 집결 장소 : 휴천동성당 10:00
- 대상 : 고3(선착순 25명)
- 회비 : 1인 40,000원
- 준비물 : 주일미사 준비, 개인배낭, 따뜻한 겨울옷, 운동화, 목주, 필기도구

### ■ 예비신학생 성지순례

- 일시 : 11월 19일(주일)
- 장소 : 부산교구 언양성당, 살티공소
- 준비물 : 미사준비, 목주, 편한 신발, 모자

### ■ 가톨릭상지대학교

#### 2018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 수시 2차 모집 : 11월 7일(화) ~ 11월 21일(화)
- 입학문의 : 교무입학처 054)851-3021, 3023  
<http://ipsi.csj.ac.kr>

### ■ 갈전본당 성전건립기금 마련 메주 주문판매

- 교우들이 직접 농사지은 콩을 사용하여 전통방식으로 메주를 만듭니다. 교우들이 정성을 다해 만듭니다.
- 문의 : 김선희 로사 010-4945-9804  
임점녀 노엘라 010-3251-5052

---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이 2016년 4월 8일(금) 로마 시각 낮 12시(한국 시각 저녁 7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문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소집했던 가정에 관한 두 차례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 곧 2014년 제3차 임시총회와 2015년 제14차 정기총회 결과를 소개하고 발전시킨 후속 권고로서, 서론과 9개 장 32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소사목지에서는 일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 제6장 사목적 전망

#### 신혼 생활 초기에 함께하기

219. 저는 흐르지 않는 물은 썩어서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된다는 속담을 기억합니다. 신혼 초기에 부부 사랑의 삶이 침체될 때, 활력을 잃을 때, 사랑을 재촉하는 활기가 사라질 때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부가 신혼 초기의 사랑을 간직하며 앞으로 나아가며 추는 춤, 경이로 가득 찬 눈으로 희망을 바라보며 추는 춤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약혼 기간과 혼인 초기에 이 희망은 바로 누룩과 같은 힘을 지니며 대립과 갈등과 부수적인 문제를 극복하도록 하여 주며 늘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망은 성장의 길로 이끄는 모든 노력을 촉진합니다. 이 희망은 또한 우리가 현재에 충실히 아가고 가정생활에 온 마음을 기울이도록 하여 줍니다. 미래를 가장 잘 준비하고 다지는 방법은 현재를 잘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20. 이 여정은 너그럽게 자기 자신을 내주어야 하는 다양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부부는 감각적인 매력을 특징으로 하는 첫인상에서 시작하여 상대방을 자신의 삶의 일부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에서 시작하여 서로에게 속한다는 기쁨을 맛보고 삶 전체를 공동의 과제로 이해하게 되며 자신의 욕구에 앞서서 상대방의 행복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게 되고 혼인이 사회에 선익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사랑이 성숙해질수록 '절충'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절충은 이해타산적인 태도나 상업적 흥정과 는 거리가 먼 것으로 궁극적으로 서로를 위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는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을 서로에게 내주고 포기하는 것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의 삶의 모든 새로운 단계마다 여러분은 마주 앉아 합의한 것을 다시 절충하여 승자도 패자도 없이 배우자 둘 다 승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지 말고 부부 두 사람이 가정을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가정이 저마다 고유한 특징을 지니기에 각각의 혼인 결합은 서로 다릅니다.

221. 혼인 생활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기대도 혼인이 깨지는 원인이 됩니다. 자기가

꿈꾸었던 것 보다 더 제한되고 문제가 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때, 그 해결 방법은 성급하고 무책임하게 결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을 성숙의 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길에서 배우자 서로가 상대방의 성숙을 위한 하느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변화하고 성장하며 각자의 장점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혼인은 ‘구원의 역사’이며 처음에는 연약하지만 하느님의 은사와 인간의 창의적이고 너그러운 응답을 통하여 언제나 더욱 견고하고 소중한 현실로 점차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각각 더 나은 남자와 더 나은 여자가 되도록 서로를 도와주는 일일 것입니다. 성숙하게 해 준다는 것은 서로가 각자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장인(匠人)의 공들임이 필요한 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의 창조에 관한 내용을 읽을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먼저 아담을 빚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창세2,7 참조). 하느님께서 어떤 본질적인 것이 부족함을 깨달으시고 하와를 지으시고 놀라워하는 아담을 바라보셨습니다. “아, 드디어 내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이야!”(창세2,22-23 참조) 이는 마치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처음 만날 때 나누는 놀라운 대화를 듣는 것 같습니다. 사실 혼인 생활의 어려운 시기에도, 상대방을 다시 설레게 하여, 마치 처음인 듯 서로를 만나도록 하는 새로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모든 새로운 단계에서, 부부는 계속해서 서로를 ‘가꾸어’ 나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며 장인(匠人)이 되어 하느님께 받은 자기의 인내를 실천하도록 합니다.

222. 사목은 신혼부부가 생명의 전달에 너그러워지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부부 사랑의 온전히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특성을 따르는 올바른 가족계획의 길은 부부의 합의된 대화의 길이고, 또한 시기에 맞추는 길이며, 배우자의 존엄을 존중하는 길이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 생명」(10-14항 참조)과 「가정 공동체」(14,28-35항 참조)의 가르침을 새롭게 받아들여 흔히 생명을 거부하는 사고방식에 맞서 아이를 낳고자 하는 뜻을 일깨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 부모가 되려는 책임 있는 선택은 양심의 형성을 전제로 합니다. 양심은 ‘인간의 가장 은밀한 핵심이며 지성소입니다. 거기에서 인간은 홀로 하느님과 함께 있고 그 깊은 곳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사목 헌장 16항 참조). 부부가 자신의 양심으로 하느님과 그분의 계명에 더욱 귀 기울이려고 노력하고(로마 2,15 참조) 영적인 도움을 더 많이 받으면 주관적인 변덕과 사회에 만연한 풍조에서 자유로워져 더욱 심오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의 다음과 같은 분명한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부부는] 함께 의논하고 노력하여 바른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의 행복과 아울러 이미 태어났거나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의 행복을 위하여 힘쓰며, 시대와 생활 신분의 물질적 정신적 조건을 알아내고, 마침내 가정 공동체와 현세 사회와 교회 자체의 선익에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부부 자신이 궁극적으로 하느님 앞에서 내려야 합니다.” 더불어 “‘자연의 법칙과 임신의 시기’(「인간 생명」, 11항)를 바탕으로 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권유하여야 합니다. ‘이 방법들은 부부의 육체를 존중하고, 그들 사이의 애정을 복돋우며 진정한 자유를 가르쳐주기’(『가톨릭 교회 교리서』, 2370항 참조) 때문입니다. 자녀는 하느님의 멋진 선물이며 부모와 교회에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더욱 강조하여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자녀들을 통하여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 다음에 계속 -



살림터 이야기

## 다시 배우는 명심보감

조태영 세례자요한  
(안동가톨릭문인회)

2017년 여름특강으로 휴천동 성당 교육관에서 <명심보감> 강의를 있었다. 명심보감이란 이름은 내게는 죽마고우의 이름처럼 다정하게 들렸고,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선친에게 한문을 배웠다. 동문선습도 조금 배웠고 명심보감도 조금 배웠다.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는데도 선친께서는 학교에 보낼 생각은 않고 한문을 가르치려고만 하셨다. 학교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한문 공부를 거부하고 학교에 보내달라고 떼를 썼다. 그렇게 하여 11살에서야 안정초등학교 3학년에 입학하게 되었다.

우리 집은 이야기 속에서나 나오는 그런 집안이었다. 증조할아버지는 백면서생(白面書生)이셨다. 비가 샌다고 기와집을 깨끗한 초가집과 맞바꾸고, 마당에 넣어놓은 우체가 비에 다 떠내려가도 글만 읽으신 분이다. 그러자 증조할머니는 선비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아들에게 글을 가르치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글을 배우려고 하면 책을 빼앗아 모두 태워버렸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당신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문맹자가 되었다. 할머니가 우리 집에 시집을 와서 할아버지가 일자무식인 것을 알고는 답답한 마음에 아들을 친정에 보내어 공부를 시켰다. 선친께서는 외할아버지에게 글을 배우셨다. 어느 정도까지 배웠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렵פות이 떠오르는 내 기억으로는 주로 중국의 역사책인 자치통감을 읽으시는 것 같았다. 때로는 책을 보지 않고 긴 문장을 외우기도 하셨다. 옛 선비들이 글을 읽을 때는 큰 소리로 읽었는데 노래 가락처럼 고저장단과 강약이 잘 조화되어 있어서 음악을 감상하는 것처럼 듣기에 아주 좋았다. 비오는 날이면 나에게 팔베개하고 좋은 문구를 이용하여 성인들의 말씀을 가르쳐주셨는데 생각해 보니 주로 명심보감에 나오는 문구를 많이 이용하신 것 같다. 그때 아버지의 팔을 베고 배운 것들이 내 삶의 초석이 되었다. 젊은 시절에 나를 이끌어 준 호연지기(浩然之氣)도 아버지의 가르침 덕이었으리라고 믿는다.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사건이 하나 있다. 아버지에게 명심보감을 배우던 첫날의 일이다. 부자(父子)가 명심보감을 앞에 두고 정좌를 하고 마주 앉아서 아버지가 선창을 하면 내가 후창을 하였다. “子曰 爲善者는 天報之以福하고 爲不善者는 天報之以禍니라.” “공자가 말씀 하시기를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복으로써 갚아 주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재앙을 준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報之(…로써 갚는다)라는 단어의 발음이 욱을 하는 것 같아, 아버지 앞에서 감히 읽지를 못하고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서 찢찢매고 있던 그때의 내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선생님은 뜻밖에도 휴천동 성당의 소화데레사 자매님이셨다. 어떤 자매님이 얼마나 학식이 높아서 명심보감을 가르치는지 궁금하기도 하여 수강을 신청했다. 선생님은 육십 대 중반의 조용하면서도 느리지 않고 온유하면서도 부족함이 없는 동양적인 여성의 미와 교양을 갖춘 분이였다. 선생님의 학식이 얼마나 깊은지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었다. 수업 중에 교재와 관련된 고사를 많이 이야기해주었다. 나도 고사를 조금은 하는데 이번 기회에 많은 것을 배웠다.

처음부터 한문을 배우려고 한 것은 아니다. 이제는 알던 한자도 거의 잊어버려서 내가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한자는 백자도 채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내가 글자를 몇자 더 안다고 해도 내게는 별 의미가 없다. 명심보감에 실린 글의 의미와, 명심보감이라는 단어가 내게 주는 향수(鄉愁)가 내게는 더 중요한 것이다. 명심보감의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살아온 날들의 삶을 돌이켜 보고, 남은 여생동안 내 삶의 길잡이로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명심보감은 몽롱한 꿈속에서 흘러나오는 향수에 듬뿍 젖은 내 아버지의 자장가이다.